

# “2000만명 고객 잡아라”... 통신3사, ‘OTT 동맹’ 시너지 확대

OTT 결합상품으로 장기고객 확보  
KT, ‘티빙·지니·밀리 초이스’ 출시  
SKT, ‘우주패스 넷플릭스’ 선보여  
LGU+, U+tv 구독상품 ‘유플레이’

통신3사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동맹을 맺는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동통신 결합 상품을 통해 2000만명에 달하는 OTT 사용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OTT 요금 인상으로 불만이 커진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전략으로 장기 고객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1일 애플리케이션(앱)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올초 주요 OTT 앱의 순사용자는 2000만명을 넘어섰다. 앱 이용자는 1인당 평균 2.3개의 OTT 앱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통신 3사는 2000만명에 달하는 OTT 이용자를 잡기위한 결합상품을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KT는 이날 5G 데이터 무제한에 티빙과 지니뮤직, 밀리의 서재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티빙·지니·밀리 초이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은 월 13만 원(초이스 프리미엄), 월 11만 원(초이스스페셜), 월 9만 원(초이스 베이직) 등 3종으로 구성됐다. 3종 모두 지니뮤직과 밀리의 서재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연말까지 웹툰·웹소설을 볼 수 있는 ‘블라이스 셀렉트’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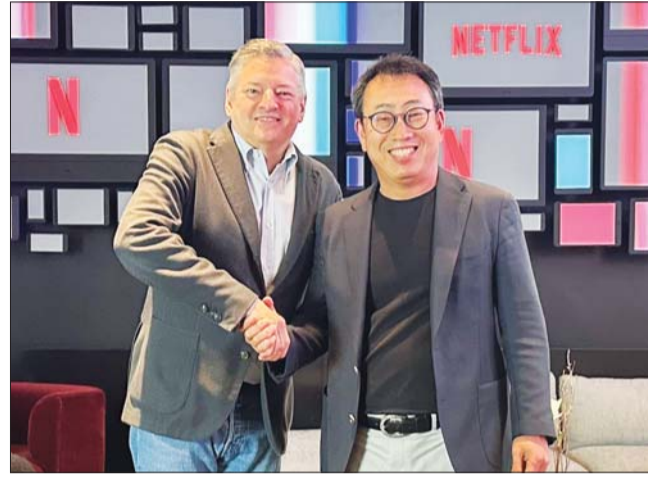
KT는 5G(5세대 이동통신) 데이터 무제한에 티빙과 지니뮤직, 밀리의 서재 혜택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티빙/지니/밀리 초이스’를 새롭게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KT

이밖에도 KT는 티빙이나 유튜브 프리미엄을 스타벅스커피 한잔쿠폰과 함께 제공하는 구독 상품을 통해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유튜브 프리미엄과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각각 이용할 때보다 2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

지난 28일 SKT는 구독 서비스 플랫폼 ‘티(T)우주’에서 넷플릭스를 구독할 수 있는 ‘우주패스 넷플릭스’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넷플릭스와 웨이브를 한번에 제공하며 넷플릭스 광고형 상품과 웨이브를 합쳐 각각 결제할 때보다 10% 저렴한 1만2000원의 가격을 책정했다. 넷플릭스 프리미엄과 웨이브를 결합한 상품은 6% 할인한 2만3400원이다. 중·고가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1만3500원

할인을 추가 제공한다. 앞서 SKT와 SK브로드밴드(SKB)는 넷플릭스와 ‘망 사료’ 소송을 끝내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SK브로드밴드도 지난달 넷플릭스 결합 요금제 4종을 출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도 국내외 인기 콘텐츠를 제공하는 IPTV 구독 상품 ‘유플레이’를 선보였다. 유플레이는 IPTV 서비스인 유플러스티비에서 영화, 해외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 7만여편을 제공한다. 넷플릭스 북미판용 드라마인 ‘리버 와일드’뿐 아니라 HBO, 아마존프라임비디오 등의 콘텐츠도 공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해외 콘텐츠 시청에 대한 니즈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해외 인기 작품을 중심으로 콘



지난달 1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넷플릭스 본사에서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오른쪽)과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CEO가 사업 협력을 위한 미팅을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모습. /SKT

텐츠 라인업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최근 통신사들이 OTT 결합 상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는 이유로 OTT 요금 인상을 지목하고 있다.

실제 최근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주요사들이 요금제를 약 20~60%까지 올리면서 ‘스트림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가구가 매달 지출하는 콘텐츠 구입비는 2019년 1만8812원에서 지난해 2만3304원으로 4년 사이에 23.9% 증가했다.

KT 관계자는 “OTT 가격 부담으로 서비스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를 위해 신규 구독팩 상품과 요금제 OTT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LGU+ 피싱·해킹 안심서비스

LG유플러스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고객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보험)’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KB손해보험과 함께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는 피싱·해킹·스미싱·파밍 등 금융 범죄에 따른 고객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1회 신청 시 4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보험 판매나 중개 방식이 아닌 장기고객 혜택 차원으로 서비스를 무상 제공키로 했다.

대상은 2023년 11월30일 기준 U+ 모바일 이용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장기고객 중 ‘개인’ 고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LG유플러스 공식 고객센터 앱 ‘당신의U+’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남영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위기 극복해 도약 기회로... 초격차 기술 경쟁력 확보”

## 삼성SDI, ‘54주년 창립기념식’ 배터리 라인업 확대 중요성 강조

“고속 성장을 기대했던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의 일시적 성장세 둔화 등은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위기입니다. 이러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SDI 최원호 사장은 1일 기흥 본사에서 열린 ‘54주년 창립기념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세계 정상급 기술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전기차·배터리의 수요정체기를 이겨내야 한다는



최원호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이 1일 삼성SDI 기흥 본사에서 개최된 ‘54주년 창립기념식’에서 기념사를 발표하고 있다. /삼성SDI

의미다. 최 사장은 “54년이라는 도전의 역사

속에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임직원분들과 파트너사들에 감사하다”라며 “삼성SDI는 지난 수년간 모두가 합심하여 미래를 위해 준비해 왔고, 2030년 목표를 향해 꾸준히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고속 성장을 기대했던 전기자동차와 배터리 시장의 일시적 성장세 둔화 등은 우리가 맞이한 새로운 위기”라며 “이러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도약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삼성 SDI는 2030년 시장

을 선도할 수 있는 초격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최 사장은 전고체 배터리와 46과이 원통형 배터리, 건식극판 등 배터리 신기술·신기술의 적기 개발을 비롯해 삼성SDI의 주력 제품인 프리미엄급 전기자동차용 배터리부터 LFP 배터리 등 불륨함 제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라인업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자재료 부문 역시 차세대 기술 선점과 신제품의 적기 시장 진입 추진을 당부했다.

/박대성 수습기자 iunm@s



LG유플러스 직원이 고객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보험)’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LGU+

## 한화로보틱스 신임 대표에 정병찬 내정

한화로보틱스는 새 대표이사로 정병찬 최고기술관리자(CTO·사진)를 내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정 신임 대표는 성균관대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미국 남가주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한화 기계 부문과 모넨텀 부문 로봇기술 팀장을 거쳐 현재는 한화로보틱스의 기술 부문을 총괄하고 있다. 정 신임 대표는 한화로보틱스의 신기술 개발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올해 출시를 앞둔 신규 협동 로봇 모델 HCR-10L 개발도 정 신임 대표가 주도하고 있다.

한화로보틱스 관계자는 “로봇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양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시장을 선도할 신기술 개발 및 글로벌 세일즈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양성원 기자 ysw@

# OCI 익산공장,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등급 SKT, AI로 안전한 산업현장 만든다

## 고용부, 상위 5% 사업장 인증

OCI가 안전한 사업장 조성을 위해 투자와 지원을 지속한다.

OCI는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4년 공정안전관리(PSM)이행상태정기평가에서 익산공장이 최고 등급인 P등급(Progressive)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안전관리(PSM) 평가는 고용노동부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 매년 전국의 유해위험설비 보유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구축 및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

하고자 만든 제도이다.

평가등급은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 총 4단계로 분류된다. OCI 익산공장은 이중 최고등급인 P등급을 획득하여 정부로부터 최상위 수준의 안전 사업장임을 인정받았다. 최고등급인 P등급은 전체 평가 대상 기업의 상위 5%에 해당한다.

OCI 익산공장은 지난 2023년부터 안전문화 향상 태스크포스(TFT)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정안전관리의 각 요소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를 개선해 왔다. /차현정 기자 hyeon@

##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

SK텔레콤이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기술이 적용된 안전보건 제품·기술을 선보인다.

ICT 기술을 기반으로 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데 일조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나흘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진행되는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와 함께 참가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AI·IoT 기술이 적용된

안전보건관련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고, 이를 널리 알림으로써 좀 더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 위해 작년에 이어 이번 전시에도 참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2024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서 SK텔레콤 ICT 패밀리사는 영상인식 AI, 지능형 안전기술 등 2개 분야에서 총 12개의 아이템을 선보인다. /구남영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